

기대 못미친 문화전당 킬러콘텐츠 '무사'

ACC, 17억 들여 2년간 준비한 액션 판타지극 서사 전개 매끄럽지 못하고 스토리라인 불명확 퍼포먼스, 스펙터클한 영상·무대는 관객 사로잡아 세계 겨냥 야심찬 준비 불구 보완·수정 불가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이 세계를 겨냥해 야심차게 준비한 액션 판타지극 '무사 MUSA : 불멸의 영웅들' (이하 무사)이 매끄럽지 못한 서사 전개와 불분명한 스토리 라인 등으로 전당의 '대표 콘텐츠' 제작이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무사'가 2년여 동안 준비한 사실상 킬러 콘텐츠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보완과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무사'는 지난 20~21일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총 3차례 공연됐다. '무사'는 고대 한반도, 인간 세상을 지배하려는 '악대' 무리와 이를 저지하고 평화를 지키내려는 '천둥이' 일행의 저승을 넘나드는 액션 판타지극으로 지난 15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입장권이 모두 매진돼 화제가 됐다.

총 17억이 투입된 '무사'는 블록버스터급 공연으로 관심을 모았다. 출연진은 모두 48명. 여기에 무대인력을 포함한 제작진은 100여명에 이른다. 백두산 전지를 형상화한 무대는 폭 50m에 깊이가 9.6m에 달하고 조명은 160대가 설치됐다. 무대 의상은 73세트, 극적 효과를 돕는 배경음악은 총 24곡이다. '키네틱 라이팅' 기술로 구현되는 천주나무와 저승을 통과하는 장지문, 워터게이트 등 대형 세트도 선보였다.

하지만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본 공연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이진식 전당장 직무대리가 '무사'를 제2·3의 대표 콘텐츠로 기획·개발해 전당의 문화콘텐츠로 육성해 나가

겠다고 밝힌 것과는 반대로 공연의 해외 유통과 관련 콘텐츠 제작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스펙터클한 볼거리에 치중, 정작 가장 중요한 서사 전개에서 개연성을 확보하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세상을 지배하는 '쇠우리'를 차지하는 게 등장인물들의 주된 미션이지만, 공연이 끝난 후 정작 관객들은 미션 임무와 수행이 어떻게 전개되고 종료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반응이었다.

또 공연은 난버벌 퍼포먼스(비언어 공연)라고 소개됐지만 중간중간 등장한 해설과 대사가 등장했고, 아마저도 배경음악에 가려 관객까지 잘 전달되지 않아 관객들의 불만을 샀다. 해설과 대사가 잘 들리지 않은 탓에 작품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무사'의 극중 인물들은 우리나라 고전 소설과 아시아신화·전설 등에 나오는 영웅 캐릭터들이 차용됐다. 박씨부인전(천둥이·이시백·계화·박치사), 제주도 서사 무가, 구전설화, 중국 산해경 등에서 영웅들을 탄생시켰지만 이런 이야기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는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작품은 공연 전 플라이와이어 연기 등 역동적인 영웅들의 모습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엉성하고 단순한 와이어 액션만이 무대에 올라 관객을 이탈하게 했다.

반면 영상과 음악, 스펙터클한 침대 무대 등은 눈길을 끌었다. 한국 전통 무예와 곡예, 아크로바틱 등 등장인물 개개인의

퍼포먼스는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외줄타기, 봉 퍼포먼스 등을 본 관객들은 끊임없이 박수갈채와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이밖에 객석과 경계를 허문 'U'자형 무대, 미디어 아트 키네틱 라이트 아트(kinetic lights art) 등 첨단 무대기술은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한편 ACC는 본 공연에 앞서 지난 20일 오후 6시 '투자 친선의 만남'을 개최했다. 국내외 투자 관련 기업과 관계자, 강릉시, 태국(Bec Tero Channel No.1),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기금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연유통과 애니메이션, 캐릭터, 아트상품, 게임 등 2차 문화콘텐츠 개발과 제작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한근 강릉시장도 2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공연을 관람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ACC가 세계를 겨냥해 준비한 대형공연 '무사 MUSA : 불멸의 영웅들'을 지난 20~21일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선보였다. 사진은 공연 중 한 장면.



ACC가 세계를 겨냥해 준비한 대형공연 '무사 MUSA : 불멸의 영웅들'을 지난 20~21일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선보였다. 사진은 공연 중 한 장면. (ACC 제공)



'장난감 무상으로 수리해드립니다'

가족공감어린이뮤지컬 25~29일 민들레 소극장

연말을 맞아 가족 모두 관람할 수 있는 가족공감어린이뮤지컬 '장난감 무상으로 수리해드립니다' 펼쳐진다. 25·28·29일 오후 2시30분·4시30분, 26일·27일 오후 4시30분. 민들레소극장.

어린이뮤지컬 '장난감 무상으로 수리해드립니다'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또 엄마, 아빠 세대가 공감할만한 재미요소가 더해져 기존 가족 뮤지컬의 한계를 넘어 온 가족이 즐겁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뮤지컬로 제작됐다.

연극은 남고 허름한 건물의 장난감병원

을 배경으로 시작된다. 이곳은 정년퇴임 이후 10년간 무상으로 아이들의 장난감들을 수리해주는 할아버지의 열정이 담긴 터전이다. 어느 날 새로운 건물주가 나타나 임대계약 만료와 동시에 장난감 병원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할아버지는 큰 근심에 빠진다. 장난감 병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공연을 주최·주관하는 (주)씨쏘뮤지컬 컴퍼니는 창작 뮤지컬 제작·공연·교육을 진행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대인시장 모티브 뮤지컬 '달빛 썰매', 가수 김정호 주크박스 뮤지컬 '하얀 나비' 등 창작 뮤지컬과 어린이역사체험 뮤지컬 '장영실을 찾아라' 등을 제작·공연했다. 관람료 2만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2020년 문화예술지원사업 24일부터 공모

문화재단, 4개 분야 26억 지원

2020년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가 24일부터 시작한다.

문화재단은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2020년 2월까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 야외공연장지원사업 등 총 4개 분야 지원사업에 총 26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공모에서는 문학·미술·음악·연극·전통·다원 등 문화예술 전 장르에서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 '문화예술교류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청년예술인창작지원' 등 5개 세부 사업에 총 13억여 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공공지원금 수혜실적이 없는 예비예술인을 위한 '생애 첫 지원'을 신설하고,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은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으로 사업명을 바꿔 거주형과 비거주형으로 분류해 차등지원한다. 또한 합리적인 예산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록 세부사업별 최소·최고액 범위를 설정하고 '정책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예산계획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원사업 심의 전문성 및 객관성 강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위원 공개추천 공모 접수 실시한다.

2016년도부터 시행된 '지원 휴식년제'는 지속 운영되며 개인은 최근 1년, 단체는 4년 연속지원(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은 2년 연속)을 받은 경우 2020년도 공모 지원이 제한된다.

공모 관련 사업설명회는 23일 빛고을 시민문화관 2층 공연장에서 두 차례 열린다. 오후 1시에는 예술단체 중심, 오후 4시에는 예술인 중심으로 진행된다. 공모 접수는 오는 2020년 1월 13일~22일 오후 6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참고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누리카드 잔액 31일까지 사용하세요"

광주문화재단, 연말 지나면 소멸은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후 이용내역이 없으면 2021년에 발급이 제한된다. 만 6세 이상(2013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누리카드는 지난 11월 30일 발급이 종료됐으며 광주지역에서 6만 7831명이 발급받았다.

한편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잔액은 농협카드 고객센터와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를 연絡하면 확인 가능 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터파크 독자가 뽑은 올 최고의 책 '박막례, 이대로...' 선정

인터파크 회원 독자들이 직접 투표한 '2019년 최고의 책'에 박막례, 김유라 저자의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가 선정됐다.

'2019 최고의 책'은 인터파크가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두 28종의 후보를 대상으로 독자 투표를 진행했으며 총 23만 654명이 참여했다.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는 나이 71세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전직해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박막례 할머니와 그녀의 손녀 김유라 PD의 에세이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박막례 할머니의

인생사를 유쾌하게 담아내며 독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2위는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가 차지했다. 3위에는 유시민 작가의 인문교양 서적 '유럽 도시 기행 1'이 이름을 올렸다. 유 작가는 예능 프로그램 '알쓸신잡'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알기 쉽게 전달하며 지지를 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 | | | | | |
|--|--|---|--|--|---|
| 다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 북구 운암동 남양휴튼2차상가 2층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 2인 진료시간 : 평 일 오전 8:30~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 원장 이상선·박민규 ☎062)511-3388 | 三代(삼대)원조 나주공방 무안군 삼향읍 오동2길 14 (전남도청 옆) 태양집 60년 전통 수육, 수육무침, 육회 포장가능 단체환영 ☎061)287-3229, 010-3602-0297 | 나주산약초 나주시 동점문길8 (나주티미널빌) 미세먼지 격정독!! ☎061)333-4514, 010-3620-7268 |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
| OK 당구장 동구 대인동 220 대인농협옆 (가오무대 지하) 포켓대 당구대설치, 최신시설완비 냉·난방 알바 친절, 신용 본위 ☎ 010-8005-0188 | 완도전북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 황금세차장 (주) 남구 송암로 27번길 23 (송암공단에서 호천지구방향 진입로옆) 초대형셀프세차, 손세차, 광택, 유리막코팅 대표이사 김용연 ☎062)652-4564 | 함께와들개 나주시 나주로15 (나주신협앞 다리 건너 위) 김밥·멸치국수전문점 김밥8멸치육전국수 ☎061)332-9992, 010-7103-2556 | 해동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 나주시 산포면 468-4(산포면사무소 입구) 토지·임야·주택·아파트·땅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 061-337-8244, 010-3626-9040 |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
| (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 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환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 ☎062)232-0038, 010-2290-0038 |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 010-3906-1718 | 청강창호 북구 청계로 67(용봉동) 현대하이사시 + 피엔에고사시 제작설치전문 ☎062)528-7711, 010-3612-9794 |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